

한국과 미국 대학의 패션관련전공 교과과정 비교 연구

김 소 라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 패션디자인학과

A Curricula Comparison Study of Undergraduate Fashion-related Majors between the Universities in Korea and those in the United States

Kim, Sora

Dept. of Fashion Design, College of Design, Dongduk Women's University

Abstract

Universities in Korea are already saturated with fashion-related majors, and graduates are having difficulties getting jobs. For this reason, Korean universities should educate students with a competitive curriculu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nd compare the curricula of fashion-related majors at universitie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U.S.) in order to help develop fashion-related curricula at the universities in Korea. The curricula of the 52 majors in 47 Korean universities and the 62 majors in 62 U.S. universities were analyzed. Data was analyzed using MS Excel 2010 and R 3.0.1.;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determined at $\alpha=0.05$. There were five main differences between fashion-related majors in Korean universities and those in the U.S. universities: 1) The subjects of the U.S. were more diverse and more business-oriented than those of Korea, but the universities of Korea had more design subjects. 2) The U.S. more often utilized computer technology, than Korea, in the field of fashion design. 3) The U.S. offered more theoretical courses, than Korea, in the field of fashion materials. 4) In the clothing construction field, the U.S. offered more apparel design and technical design than Korea. 5) The U.S. mainly educated on retailing and buying subjects while Korea mainly educated on fashion marketing subjects within the fashion business field.

Key words : curricula comparison(교과과정 비교), fashion-related majors(패션관련전공), universities in Korea(한국대학), universities in the U.S.(미국대학)

Corresponding author: Kim, Sora, Tel. +82-2-940-4139, Fax. +82-02-512-4954
E-mail: ksr810@dongduk.ac.kr

This study was conducted by the research year system of Dongduk Women's University in 2013.

1. 서론

국내 패션산업이 발달해감에 따라 패션산업에 필요한 인력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패션관련전공을 개설하는 대학들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많은 대학과 교육업체가 패션관련전공을 개설하여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졸업생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취업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학들은 좀 더 우수한 교과과정으로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로 교과과정을 개발할 때 참고할 만한 체계적인 분석 자료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패션관련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Na, Kwon, and Lee(2008)의 패션관련학과의 전공교과과정 현황을 분석한 연구에서 국내 4년제 대학의 패션관련학과를 세 가지 군, 즉 의류학과군, 패션디자인학과군, 패션산업학과군으로 분류하여 교과목 분야별로 개설된 교과과정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Y. Lee and Lee(2007)는 4년제 대학, 패션관련전공의 패션마케팅 분야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Jung(2009)은 한국과 미국의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패션 소매 경영과정을 위한 교과과정을 연구하였다. 또한 S. Lee and Park(2007)은 패션마케팅 분야의 한, 미 대학원의 교과과정을 비교분석하여 글로벌 패션마케팅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모색하였다. Cho(1997)는 교과과정을 연구하지는 않았으나 한국섬유산업의 내외환경을 분석하여 한국패션산업의 인재육성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국과 외국의 4년제 대학, 패션관련전공 교과과정에 대한 비교 연구로는 유일하게 Gu, Kim, Park, Park, and Chu(1999)가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홍콩의 4년제 대학 패션관련학과의 교과과정을 비교분석한 연구가 있다.

미국대학의 패션관련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Pedersena and Burnsa(2011)는 패션관련교과과정의 통합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부와 대학원의 교과과정 통합은 겹치는 교과과정을 최소화하여 시각적, 정책적으로 강한 학과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Laughlin

and Kean(1995)은 미국 의류직물학과의 학문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연구를 하였으며, Landgren and Pasricha(2011)는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패션의 지속성(sustainability)을 패션과 어패럴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Garner and Buckley(1998)는 패션마케팅 분야의 직업에 필요한 의류직물학과의 교과과정 내용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Johnson, Yurchisin, and Bean(2003)은 어패럴 교과과정에서의 작문의 중요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러한 패션관련교과과정에 대한 연구는 각각의 연구 주제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연구의 주제가 특정 분야에 한정되거나, 분야별로 구체적인 교과목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고 포괄적인 내용만을 다루었다. 또한 교과과정에 대한 국제적인 비교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와 같이 교과과정 전체의 현황 분석에 대한 연구는 그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다양한 교과목에 대한 분석이 복잡하여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분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패션관련전공의 교과과정에 대한 포괄적이면서 구체적인 체계적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더욱이 패션과 같은 응용학문의 효율적인 교과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산업체 지향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국가의 교과목 구성 현황과 국내의 현황을 비교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의 패션관련전공 교과과정과 실용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 중의 하나인 미국의 교육과정 현황을 조사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한국과 미국의 4년제 대학, 패션관련전공 교과과정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대학의 패션관련전공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 대상 대학 및 전공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 4년제 대학의 패션관련전공에 개설된 교과목 현황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한국대학 52개 전공과 미국대학 62개 전공의 교과

과정을 분석하였다. 한국대학의 경우 한 대학의 두 캠퍼스에 각각 패션관련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와 같은 캠퍼스 내에 유사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47개 대학의 52개 전공을 분석하였다. 4년제 대학으로 분석 대상을 한정한 이유는 2년제와 4년제 대학의 교육 목적이 상이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교과과정을 분석할 때 객관적인 분석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의 교과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패션관련전공’으로 ‘전공’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각 대학의 학제에 따라 ‘학과’와 ‘전공’이 혼용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대학의 경우 ‘학과(department)’와 ‘전공(major)’, ‘프로그램(program)’, ‘과정(course)’ 등이 혼용되어 있다. 그러나 학과나 프로그램, 과정에 비해 전공으로 되어 있는 대학이 많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공(major)’으로 용어를 통일하고자 한다. 또한 ‘패션관련전공’을 패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전공으로 한정하였다. 즉, 교과과정이 특정분야에 치중되어 있어 객관적인 교과목 개설 현황을 비교할 수 없는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패션 전반에 걸친 교육을 실시하는 전공으로 한정하였다.

분석 대상 대학 선정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과 미국 모두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대학은 고용노동부의 직업·진로 사이트인 WORKNET(<http://www.work.go.kr>)의 학과정보 검색에서 ‘의류·의상학과’와 ‘패션디자인학과’를 검색조건으로 하여 선정하였다. 검색된 82개 대학, 90개 전공 중 전공이 특정분야에 치중된 섬유패션코디네이션, 섬유디자인, 섬유조형디자인, 패션텍스타일디자인, 패션엑세서리, 패션스타일리스트, 패션뷰티디자인, 패션마케팅 등의 전공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패션 전반에 걸친 교육을 실시하는 전공으로 한정하여 73개 대학, 78개 전공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미국대학은 교육통계 사이트인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http://nces.ed.gov>)의 College Navigator에서 전공명이 ‘Fashion/Apparel Design’과 ‘Apparel and Textiles’에 해당하는 대학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fashion’을 검색어로 했을 때의 전공 중 ‘Fashion and Fabric Consultant’와 ‘Fashion Merchandising’, ‘Fashion Modeling’, 그리고 ‘apparel’을 검색어로 했을 때의 전공 중 ‘Apparel and Accessories Marketing Operations’와 ‘Apparel and Textile Manufacture’, ‘Apparel and Textile Marketing Management’는 교과과정이 특정분야에 치중되어 있어 객관적인 교과목 개설 현황을 비교할 수 없으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패션 전반에 걸친 교육을 실시하는 전공으로 한정하여 131개 대학의 131개 전공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추출된 한국대학 73개, 78개 전공과 미국대학 131개의 홈페이지에 제공된 교과과정을 전수조사하였다. 이 중 대학 홈페이지에 교과목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와 교과목명만 제공하고 교과목 설명이 없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교과목 설명이 없는 경우를 분석에서 제외한 이유는 교과목명만으로는 해당 과목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어 객관적인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한국 47개 대학, 52개 전공과 미국 62개 대학, 62개 전공의 교과목을 분석하였다.

2. 조사 및 분석 내용과 방법

한국과 미국 대학 모두 각 대학의 학제 차이에 따라 패션관련전공이 소속되어 있는 계열 및 단과대학, 학부, 학과, 전공, 코스 등이 상이하며, 학점 수, 교과목 수, 교과목당 시간 수 등이 상이하므로 객관적인 비교를 하기 어렵다. 특히, 패션관련전공은 전공의 특성상 다른 전공에 비해 소속이 다양하다. 그러나 패션 전반에 대해서 교육하는 4년제 대학의 경우 교육하는 분야와 졸업생 취업 분야는 학제에 관계없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학제에 따른 차이를 배제하고 패션 전반에 대한 교육을 하는 한국과 미국의 4년제 대학의 패션관련전공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 교과목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1) 패션관련전공의 분야 및 분야별 교과목 선정

패션관련전공에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을 ‘기초디자인(fundamental design), 패션디자인(fashion design), 패션드로잉(fashion drawing), 패션소재(fashion materials), 의복구성(clothing construction), 패션비즈니스(fashion business), 복식사(costume history)의 7개 주요 분야로 나누고, 이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를 기타(others)’로 하였다. 분야 선정은 Na et al. (2008)의 연구와 ITAA(International Textiles & Apparel Association)에서 발행하는 저널인 CTRJ(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의 학문 분야 구분, 그리고 한국과 미국 대학의 현황 교과과정을 참고한 후,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선정하였다. 또한 이 8개 분야 내에서 주요 교과목을 선정하였다. 각 분야 내에서도 주요 교과목에 포함되지 않는 교과목은 그 분야 내의 기타(others)로 분류하였다. 8개 분야별 교과목은 Table 1과 같다.

2) 한국과 미국 대학 패션관련전공 교과목의 분야별 개설 현황 비교 방법

대학별로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을 해당 교과목 설명(course description)에 준하여 기초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드로잉, 패션소재, 의복구성, 패션비즈니스, 복식사, 기타의 8개 분야로 나누어 배치하여 연구대상 각 대학에 대한 8개 분야별 빈도수를 구하였다. 이 값을 국가별로 모두 더하여 분야별로 개설된 교과목의 빈도수를 구하였으며, 국가별로 8개 분야에 대한 교과목의 빈도수를 모두 더하여 국가별 총 개설 교과목수를 구하였다. 교과목의 분야별 개설 비율을 구하기 위하여 전체 개설 교과목 수에 대한 각 분야별 교과목 수의 비율을 구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대학의 의복구성(clothing construction) 분야의 개설 과목 수를 모두 더한 값이 408, 한국대학 전체의 개설 교과목 수가 1977이라고 할 때, 한국대학의 의복구성 분야의 개설 비율은 20.64%가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7개 분야, 즉 기초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드로잉, 패션소재, 패션비즈니스, 복식사, 기타 분야의 교과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여 미국대학의 분야별 교과목 비율과 비

교하였다.

3) 한국과 미국 대학의 패션관련전공 교과목의 분야별, 교과목별 개설 현황 비교 방법

기초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드로잉, 패션소재, 의복구성, 패션비즈니스, 복식사, 기타의 8개 분야 내에서 각각의 교과목 개설 비율을 구하기 위하여 과목별로 한국과 미국 대학별로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 수를 모두 더한 후, 분야별 개설 교과목 합계로 나누어 분야별 교과목별 비율을 구하였다. 기초디자인(fundamental design) 분야를 예로 들어보면, 전체 한국대학에 개설된 색채(color) 관련 교과목이 46개, 기초디자인 분야 전체 교과목이 102개라고 할 때, 색채 관련 교과목의 개설 비율은 45.10%가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교과목에 대한 개설 비율을 구하여 같은 분야 내에서의 교과목 비율을 비교하고, 이를 미국대학의 현황과 비교하였다.

4) 통계분석방법

교과목 빈도수와 비율을 구하기 위하여 MS Excel 2010을 사용하였으며, 한국과 미국 대학의 분야별 교과목 개설 현황과 교과목별 개설 현황을 비교하기 위하여 R 3.0.1 version을 사용하여 집단 간의 빈도 유의차 검정에 사용되는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을 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한국과 미국 대학 패션관련전공 교과목의 분야별 개설 현황 비교 결과

기초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드로잉, 패션소재, 의복구성, 패션비즈니스, 복식사, 기타의 8개 분야에 대한 한국과 미국 대학의 교과목 개설 비율 및 순위는 Table 2와 같다. 한국과 미국 대학의 분야별 교

Table 1. Subject Fields and Subjects for Fashion-related Majors

Subject Field	Subjects
Fundamental Design	Color, Fundamental design practice, Fundamental CAD, Design theory, Others
Fashion Design	Esthetics of fashion, Fashion design theory, Fashion design practice, CAD for fashion design, Fashion collection, Accessories design, Costume design, Others
Fashion Drawing	Croquis, Fashion illustration, Others
Fashion Materials	Theory of apparel materials, Laboratory and analysis for apparel materials, Fabric construction, Knits, Textile design, Fabric dyeing, Textile development, Textile planning, Others
Clothing Construction	Flat pattern design, Draping, Construction skills, Apparel design, Apparel pattern CAD & apparel production, Clothing construction for fashion collection & creative dress, Clothing ergonomics, Technical design & fitting, Korean dress construction, Others
Fashion Business	Fashion industry, Fashion market research, Fashion trend analysis, Fashion psychology & consumer behavior, Fashion merchandising, Fashion marketing, Fashion retailing & buying, Visual merchandising & sales promotion, Global fashion business, Fashion e-business, Fashion show production, Product development, Merchandising mathematics, Others
Costume History	History of western dress, History of 20C western dress, Ethnic dress, History of art & design, History of textiles, History of Korean dress, History of Asian dress, Others
Others	Introduction to apparel, Internship, portfolio & presentation, Styling & coordination, Display, Fashion and culture & society, Fashion journalism, Functional clothing, Clothing and environment, Quality control and evaluation of apparel products, Clothing management, Fashion design & construction, Teaching profession, English related with fashion, Seminar & workshop, Major & course, Vocational guidance, Senior project & thesis, Special topics & independent studies, Contemporary issued in fashion, Fashion tour, Others

과목 개설 현황을 비교하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을 한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분야는 기초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소재, 패션비즈니스, 기타의 5개 분야이다. 기초디자인과 패션디자인, 패션소재 분야는 한국대학의 개설비율이 높았으며, 패션비즈니스와 기타 분야는 미국대

학의 개설비율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한국대학은 미국대학보다 디자인과 소재 교육을, 미국대학은 한국대학보다 비즈니스 교육과 과목의 다양성을 중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패션드로잉과 의복구성, 복식사 분야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2. Curricula Comparison of the Universities in Korea and the Universities in the U.S. According to Subject Fields

	Korea (N*=52)			The U.S. (N*=62)			p-value**
	Count	Percent (%)	Ranking	Count	Percent (%)	Ranking	
Fundamental design	102	5.16	8	42	2.40	8	< 0.001
Fashion design	363	18.36	2	225	12.84	4	< 0.001
fashion drawing	116	5.87	7	108	6.16	6	0.76
Fashion materials	281	14.21	4	164	9.36	5	< 0.001
Clothing construction	408	20.64	1	365	20.82	2	0.92
Fashion business	265	13.40	5	327	18.65	3	< 0.001
Costume history	120	6.07	6	107	6.10	7	1.00
Others	322	16.29	3	415	23.67	1	< 0.001
Total	1977	100.00	-	1753	100.00	-	-

* N represents the number of all the fashion-related majors opened in each country.

** The p-values are from the chi-square tests performed to compare the proportions of subject fields between Korea and the U.S.

한국대학의 교과목 분야별 개설 현황 순위는 의복구성, 패션디자인, 기타, 패션소재, 패션비즈니스, 복식사, 기초디자인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국대학은 기타, 의복구성, 패션비즈니스, 패션디자인, 패션소재, 패션드로잉, 기초디자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1, 2, 3위에 양국 모두 의복구성과 기타 분야가 속해 있으나, 한국대학에서는 패션디자인, 미국대학에서는 패션비즈니스가 속해 있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 패션머천다이징 전공이 개설된 대학은 없으며, 한 개 대학에서 패션마케팅 전공을 개설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패션머천다이징 전공이 개설된 대학이 74개교로 이 분야에 대한 교육의 비중이 매우 높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패션머천다이징, 패션마케팅 등의 패션비즈니스 관련 전공을 제외했는데도 패션비즈니스 분야의 교과목 비중이 패션디자인 분야의 교과목 비중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을 고려해볼 때, 미국대학에서의 패션비즈니스 분야 교육의 비중과 필요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의 패션산업이 디자인이나 생산보다 유통과 마케팅을 중요시하는 체제

로 점차 변화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미국대학에서는 패션비즈니스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패션을쿨이 아닌 4년제 대학에서도 전공 세분화를 이루어 패션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미국대학의 기타 분야 교과목의 비율이 매우 높은 이유는 패션산업이 세분화되고 직종이 다양화되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한국패션협회는 2014년 한국 패션산업 10대 뉴스(Park, 2014)로 해외직구, 큐레이션(curation) 소비, 라이프스타일샵, 아웃도어 & SPA 세분화, 옴니채널(omni-channel), 농코어(nomcore), 모바일 최적화, 패션+α, 차이나머니, 디지털 패션 테크(digital fashion tech)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소비자의 취향 및 제품 구매방법, 패션산업 환경에 있어서 다각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패션산업 변화를 대학 교육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패션비즈니스 및 기타 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한국과 미국 대학의 패션관련전공 교과목의 분야별, 교과목별 개설 현황 비교 결과

1) 기초디자인

한국과 미국 대학 패션관련전공의 기초디자인 분야의 교과목별 개설 현황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색채(color) 교과목의 개설 비율은 한국대학이 높고, 디자인 이론(design theory) 교과목의 개설 비율은 미국대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미국대학은 색채 단독에 대한 교육보다는 디자인 이론 전반에 대한 교육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대학의 기초디자인 분야 교과목의 개설 순위는 색채, 기초디자인 실습(fundamental design practice), 기초 CAD(fundamental CAD), 디자인 이론의 순으로 나타났고, 미국대학은 기초디자인 실습, 디자인 이론, 색채, 기초 CAD의 순으로 나타났다.

2) 패션디자인

한국과 미국 대학 패션관련전공의 패션디자인 분야의 교과목별 개설 현황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패션디자인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패션디자인 CAD(CAD for fashion design) 교과목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대학이 한국대학보다 패션디자인 분야 교육에서 컴퓨터의 활용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대학의 패션디자인 분야 교과목의 개설 순위는 패션디자인 실습(fashion design practice), 패션 컬렉션(fashion collection), 패션디자인 CAD, 기타(others), 패션디자인 이론(fashion design theory), 액세서리 디자인(accessory design), 복식미학(esthetics of fashion), 무대의상(costume design)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국대학은 패션디자인 실습, 패션디자인 CAD, 패션 컬렉션, 기타, 액세서리 디자인, 패션디자인 이론, 복식미학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3. Subject Comparison of the Fundamental Design Field between the Universities in Korea and the Universities in the U.S.

	Korea (N* = 102)			The U.S. (N* = 42)			p-value**
	Count	Percent (%)	Ranking	Count	Percent (%)	Ranking	
Color	46	45.10	1	9	21.43	3	0.014
Fundamental design practice	29	28.43	2	13	30.95	1	0.92
Fundamental CAD	18	17.65	3	8	19.05	4	1.00
Design theory	8	7.84	4	12	28.57	2	0.003
Others	1	0.98	5	0	0.00	5	NA***

* N represents the number of total counts of all the subjects in the field of 'Fundamental Design' in each country.

** The p-values are from the chi-square tests performed to compare the proportions of subjects between Korea and the U.S.

*** NA (Not Available) is reported for the subject with too low counts, thus further analysis by the chi-square test is not possible due to the violation of assumption.

Table 4. Subject Comparison of the Fashion Design Field between the Universities in Korea and the Universities in the U.S.

	Korea (N* = 363)			The U.S. (N* = 225)			p-value**
	Count	Percent (%)	Ranking	Count	Percent (%)	Ranking	
Esthetics of fashion	11	3.03	7	5	2.22	7	0.75
Fashion design theory	30	8.26	5	14	6.22	6	0.45
Fashion design practice	127	34.99	1	71	31.56	1	0.44
CAD for fashion design	47	12.95	3	54	24.00	2	0.001
Fashion collection	77	21.21	2	46	20.44	3	0.91
Accessories design	18	4.96	6	15	6.67	5	0.49
Costume design	9	2.48	8	4	1.78	8	NA***
Others	44	12.12	4	16	7.11	4	0.07

* N represents the number of total counts of all the subjects in the field of ‘Fashion Design’ in each country.

** The p-values are from the chi-square tests performed to compare the proportions of subjects between Korea and the U.S.

*** NA (Not Available) is reported for the subject with too low counts, thus further analysis by the chi-square test is not possible due to the violation of assumption.

양국 모두 1위는 패션디자인 실습 교과목이었으며, 2위와 3위가 바뀌어 있기는 하나 패션 컬렉션과 패션디자인 CAD 교과목으로 나타나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양국 모두 이론보다는 실습 위주의 교육이 주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패션드로잉

한국과 미국 대학 패션관련전공의 패션드로잉 분야의 교과목별 개설 현황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패션드로잉(fashion drawing) 분야 교과목은 다른 분야에 비해 교과목 종류가 많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 대학 모두 패션일러스트레이션(fashion illustration) 교과목이 월등히 많고 인체 크로키(croquis) 교과목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으며 기타(others) 교과목은 없었다. 양국 간의 패션드로잉 분야 교과목의 개설 현황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패션소재

한국과 미국 대학 패션관련전공의 패션소재 분야의 교과목별 개설 현황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소재이론(theory of apparel materials)과 니트(knits), 염색(fabric dyeing) 교과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이론과 니트 교과목은 미국대학의 개설 비율이 높고, 염색 교과목은 한국대학의 개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기획(textile planning)은 미국대학에 개설된 곳이 없어서 통계적인 차이를 분석할 수는 없었으나 한국대학에서 9.25%의 비율로 개설되어 있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대학의 패션소재 분야 교과목의 개설 순위는 소재이론, 염색, 텍스타일 디자인(textile design), 소재기획, 소재개발(textile development), 니트, 소재구성(fabric construction), 기타(others), 소재 실험 및 분석(laboratory and analysis for apparel materials)

Table 5. Subject Comparison of the Fashion Drawing Field between the Universities in Korea and the Universities in the U.S.

	Korea (N* = 116)			The U.S. (N* = 108)			p-value**
	Count	Percent (%)	Ranking	Count	Percent (%)	Ranking	
Croquis	22	18.97	2	15	13.89	2	0.40
Fashion illustration	94	81.03	1	93	86.11	1	0.40

* N represents the number of total counts of all the subjects in the field of 'fashion drawing' in each country.

** The p-values are from the chi-square tests performed to compare the proportions of subjects between Korea and the U.S.

Table 6. Subject Comparison of the Fashion Materials Field between the Universities in Korea and the Universities in the U.S.

	Korea (N* = 281)			The U.S. (N* = 164)			p-value**
	Count	Percent (%)	Ranking	Count	Percent (%)	Ranking	
Theory of apparel materials	71	25.27	1	76	46.34	1	< 0.001
Laboratory and analysis for apparel materials	9	3.2	9	11	6.71	4	0.14
Fabric construction	20	7.12	7	5	3.05	7	0.11
Knits	21	7.47	6	24	14.63	3	0.024
Textile design	41	14.59	3	28	17.07	2	0.57
Fabric dyeing	53	18.86	2	5	3.05	7	< 0.001
Textile development	25	8.90	5	8	4.88	5	0.17
Textile planning	26	9.25	4	0	0.00	9	NA***
Others	15	5.34	8	7	4.27	6	0.78

* N represents the number of total counts of all the subjects in the field of 'Fashion Materials' in each country.

** The p-values are from the chi-square tests performed to compare the proportions of subjects between Korea and the U.S.

*** NA (Not Available) is reported for the subject with too low counts, thus further analysis by the chi-square test is not possible due to the violation of assumption.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국대학은 소재이론, 텍스타일 디자인, 니트, 소재 실험 및 분석, 소재개발, 기타, 소재구성/염색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국 모두

1위는 소재이론 교과목이었으며, 3위 안에 텍스타일 디자인 교과목이 포함되면서 한국은 염색, 미국은 니트 교과목이 속해 있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2에서 패션소재 분야의 교과목 개설비율에 있어서 한국대학이 미국대학보다 높았으나, 패션소재 분야 내의 교과목 구성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미국대학이 소재이론의 비중이 높고, 한국대학은 소재실기의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다.

5) 의복구성

한국과 미국 대학 패션관련전공의 의복구성 분야의 교과목별 개설 현황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어패럴디자인(apparel design) 교과목과 테크니컬디자인 및 피팅(technical design & fitting) 교과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패럴디자인 교과목은 패턴제작과 봉제가 한 과목 내에

서 이루어지는 교과목으로 미국대학이 한국대학보다 개설 비율이 높았다. 테크니컬디자인 및 피팅 교과목은 최근 들어 한국대학에서도 개설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미국대학에 비해서는 개설 비율이 낮았다.

의복구성 분야에서 가장 많이 개설된 교과목은 한국과 미국 대학 모두 어패럴디자인으로 나타나 패턴제작만 분리해서 교육하는 평면재단(flat pattern design)과 입체재단(draping) 교과목보다 패턴과 봉제를 한 과목에서 교육하는 어패럴디자인 교과목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위와 3위는 한국대학의 경우 입체재단, 평면재단의 순이었으나 미국대학은 평면재단, 입체재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패럴디자인 교과목의 패턴제작 방식에 있어

Table 7. Subject Comparison of the Clothing Construction Field between the Universities in Korea and the Universities in the U.S.

	Korea (N* = 408)			The U.S. (N* = 365)			p-value**
	Count	Percent (%)	Ranking	Count	Percent (%)	Ranking	
Flat pattern design	73	17.89	3	81	22.19	2	0.16
Draping	80	19.61	2	54	14.79	3	0.10
Construction skills	22	5.39	6	25	6.85	5	0.49
Apparel design	104	25.49	1	130	35.62	1	0.003
Apparel pattern CAD & apparel production	45	11.03	4	45	12.33	4	0.65
Clothing construction for creative dress	9	2.21	9	8	2.19	7	1.00
Clothing ergonomics	10	2.45	8	0	0.00	9	NA***
Technical design & fitting	3	0.74	10	15	4.11	6	0.004
Korean dress construction	45	11.03	4	0	0.00	9	NA***
Others	17	4.17	7	7	1.92	8	0.11

* N represents the number of total counts of all the subjects in the field of 'Clothing Construction' in each country.

** The p-values are from the chi-square tests performed to compare the proportions of subjects between Korea and the U.S.

*** NA (Not Available) is reported for the subject with too low counts, thus further analysis by the chi-square test is not possible due to the violation of assumption.

서 미국대학은 평면재단과 입체재단을 구분 없이 하는 것에 반하여, 한국대학은 평면재단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석할 수 있다.

한복을 제작하는 한국의상구성(Korean dress construction)과 의복인간공학(clothing ergonomics) 교과목은 한국대학에서만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인 차이를 분석할 수는 없었다. 또한 한국대학은 한국의상구성(Korean dress construction) 교과목의 개설비율이 11.03%로 나타나 미국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른 교과목의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6) 패션비즈니스

한국과 미국 대학 패션관련전공의 패션비즈니스 분야의 교과목별 개설 현황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패션마케팅(fashion marketing)과 패션리테일링 및 바잉(fashion buying & retailing) 교과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패션마케팅은 한국대학의 개설비율이 높고, 패션리테일링 및 바잉은 미국대학의 개설비율이 높았다.

1, 2, 3위를 비교해 보면, 한국대학은 패션마케팅, 패션머천다이징(fashion merchandising), 의상심리

Table 8. Subject Comparison of the Fashion Business Field between the Universities in Korea and the Universities in the U.S.

	Korea (N* = 265)			The U.S. (N* = 327)			p-value**
	Count	Percent (%)	Ranking	Count	Percent (%)	Ranking	
Fashion industry	22	8.30	7	31	9.48	5	0.72
Fashion trend analysis	15	5.66	8	16	4.89	8	0.82
Fashion psychology & consumer behavior	36	13.58	3	29	8.87	6	0.09
Fashion merchandising	40	15.09	2	38	11.62	3	0.26
Fashion marketing	44	16.60	1	13	3.98	10	< 0.001
Fashion retailing & buying	23	8.68	6	61	18.65	1	< 0.001
Visual merchandising & sales promotion	30	11.32	4	45	13.76	2	0.45
Global fashion business	13	4.91	9	24	7.34	7	0.30
Fashion e-business	9	3.40	10	1	0.31	13	NA***
Small business start-up	7	2.64	11	1	0.31	13	NA***
Fashion show production	0	0.00	12	9	2.75	11	NA***
Product development	0	0.00	12	16	4.89	8	NA***
Merchandising mathematics	0	0.00	12	7	2.14	12	NA***
Others	26	9.81	5	36	11.01	4	0.74

* N represents the number of total counts of all the subjects in the field of 'Fashion Business' in each country.

** The p-values are from the chi-square tests performed to compare the proportions of subjects between Korea and the U.S.

*** NA (Not Available) is reported for the subject with too low counts, thus further analysis by the chi-square test is not possible due to the violation of assumption.

및 소비자행동(fashion psychology & consumer behavior)의 순으로 나타났고, 미국대학은 패션리테일링 및 바잉, 비주얼머천다이징 및 판매촉진(visual merchandising & sales promotion), 패션머천다이징의 순으로 나타나 패션머천다이징 교과목 이외 두 과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패션쇼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패션쇼프로덕션(fashion show production)과 패션상품개발(product development), 머천다이징수학(merchandising mathematics) 교과목은 미국대학에만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패션비즈니스 분야 교과목의 경우 미국대학이 한국대학보다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리테일링 및 바잉 교과목이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한국대학은 패션마케팅과 의상사회심리학 등 패션비즈니스 분야의 전통적인 교과목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7) 복식사

한국과 미국 대학 패션관련전공의 복식사 분야의 교과목별 개설 현황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복식사 분야는 한국과 미국 대학의 개설 교과목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두 나라 대학 모두 서양복식사(history of western dress) 교과목의 개설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예술사 및 디자인사(history of art & design) 교과목은 미국대학의 개설 비율이 높았으며, 한국복식사(history of Korean dress)와 동양복식사(history of Asian dress) 교과목은 한국대학에만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의 복식사 분야 교과목의 개설 순위는 서양복식사, 한국복식사, 20세기 복식사(history of 20C western dress), 동양복식사(history of Asian dress), 민속의상(ethnic dress), 예술사 및 디자인사, 기타(others), 텍스타일사(history of textiles)의 순으로 나타났고, 미국대학은 서양복식사, 20세기 복식사, 예술사 및 디자인사, 기타, 텍스타일사, 민속의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9. Subject Comparison of the Costume History Field between the Universities in Korea and the Universities in the U.S.

	Korea (N* = 120)			The U.S. (N* = 107)			p-value**
	Count	Percent (%)	Ranking	Count	Percent (%)	Ranking	
History of Western Dress	44	36.67	1	48	44.86	1	0.26
History of 20C Western Dress	18	15.00	3	25	23.36	2	0.15
Ethnic Dress	8	6.67	5	5	4.67	6	0.72
History of Art & Design	5	4.17	6	12	11.21	3	0.08
History of Textiles	1	0.83	8	6	5.61	5	NA***
History of Korean Dress	31	25.83	2	0	0.00	7	NA***
History of Asian Dress	9	7.50	4	0	0.00	7	NA***
Others	4	3.33	7	11	10.28	4	0.07

* N represents the number of total counts of all the subjects in the field of 'Fashion-Related History' in each country.

** The p-values are from the chi-square tests performed to compare the proportions of subjects between Korea and the U.S.

*** NA (Not Available) is reported for the subject with too low counts, thus further analysis by the chi-square test is not possible due to the violation of assumption.

8) 기타

한국과 미국 대학 패션관련전공의 기타 분야 교과목별 개설 현황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앞에서 분석한 기초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드로잉, 패션소재, 의복구성, 패션비즈니스, 복식사의 7개 분야에 속하지 않는 교과목을 기타(others) 분야로 묶어 분석한 결과, 스타일링 및 코디네이션(styling & coordination)과 의복품질평가(quality control & evaluation of apparel products) 교과목에서 한국과 미국 대학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스타일링 및 코디네이션 교과목은 한국대학의 개설비율이 높고, 의복품질평가 교과목은 미국대학의 개설비율이 높았다.

기타 분야는 앞의 7개 분야에 속하지 않는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교과목이 매우 다양하다. 개설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대학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교직(teaching profession) 교과목이 한국대학에서는 1위로 나타났다. 교직과정이 있는 경우, 한 대학에 3개 또는 4개의 과목이 필수적으로 개설되기 때문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턴십(internship) 교과목의 개설 비율은 한국대학 3위, 미국대학 2위로 나타나 두 나라 모두 인턴십이 대학 교육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대학의 경우 인턴십 교과목의 개설비율이 매우 높아 산업체 연계 교육에 더욱 힘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직 교과목과 패션관련영어(English related with fashion), 의복관리(clothing management) 교과목은 한국대학에만 개설되어 있었으며, 특정 주제를 정해 개별 연구하는 스페셜토픽 및 인디펜던트스터디(special topics & independent studies),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연구하는 패션컨템퍼러리아슈(contemporary issued in fashion), 그리고 미국 국내외로 패션투어를 하는 패션투어(fashion tour) 교과목은 미국대학에만 개설되어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분석할 수 없었다. 미국대학은 한국대학보다 패션산업의 조류를 반영하는 교과목의 비율이 높고, 학부에서도 개별 관심 주제에 대하여 연구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대

학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기타 분야 내의 기타 과목 중 두 개 이상의 빈도를 나타낸 교과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과 미국 대학 모두 패션사진 및 영상, 논문, 전공 관련 글쓰기 등의 교과목이 있었으며, 한국대학에서는 디자인감성공학, 이미지메이킹, 규방공예, 미국대학에서는 패션산업에서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in the fashion industry), 패션과 관련된 인테리어디자인, 슈즈디자인, 자수 등의 교과목이 있었다.

IV. 결론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4년제 대학, 패션관련전공의 교과과정을 분야별로 비교·분석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47개 대학, 52개 전공과 미국 62개 대학, 62개 전공의 교과과정을 분석하였다.

한국과 미국 대학 패션관련전공의 교과목 개설 현황을 분야별로 비교한 결과, 한국대학은 디자인과 소재 교과목의 비중이 높고, 미국대학은 비즈니스와 기타 교과목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 대학 패션관련전공의 교과목 개설 현황을 분야별, 교과목별로 비교한 결과, 기초디자인 분야의 경우, 한국대학은 색채 교과목의 개설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미국대학은 디자인이론 교과목의 개설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국대학의 경우 디자인의 기본이 되는 이론 교육을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패션디자인 분야의 경우, 미국대학은 한국대학보다 패션디자인 CAD 교과목의 개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패션디자인 교과교육에 있어서 컴퓨터의 활용을 중요시하고 있었으며, 양국 모두 이론보다는 실기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었다. 패션드로잉 분야는 한국대학과 미국대학의 차이가 없었으며, 패션소재 분야에서는 한국대학이 미국대학보다 전체 교과목 중 패션소재 교과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패션소재 분야 내의 교과목 구성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미국대학에서 소재이론 교과목의 비중이 높고, 한국대학에서는 소재실기의 비중이 높았다. 의복구성 분야의 경우, 미국대학이 한

Table 10. Subject Comparison of the Others Field between the Universities in Korea and the Universities in the U.S.

	Korea (N* = 322)			The U.S. (N* = 415)			p-value**
	Count	Percent (%)	Ranking	Count	Percent (%)	Ranking	
Introduction to Apparel	9	2.80	12	18	4.34	8	0.36
Internship	41	12.73	3	72	17.35	2	0.11
Portfolio	29	9.01	4	43	19.36	4	0.62
Styling/Coordination	24	7.45	5	6	1.45	14	< 0.001
Display	9	2.80	12	1	0.24	17	NA***
Fashion and Culture & Society	14	4.35	7	19	4.58	7	1.00
Fashion Journalism	9	2.80	12	3	0.72	16	0.06
Functional Clothing	10	3.11	9	4	0.96	15	0.07
Clothing and Environment	16	4.97	6	0	0.00	18	NA***
Quality Control & Evaluation of Apparel Products	9	2.80	12	26	6.27	6	0.043
Clothing Management	8	2.48	16	0	0.00	18	NA***
Fashion Design & Construction	11	3.42	8	18	4.34	8	0.66
Teaching Profession	49	15.22	1	0	0.00	18	NA***
Fashion-related English	10	3.11	9	0	0.00	18	NA***
Seminar & Workshop	5	1.55	18	13	3.13	11	0.26
major & Course	10	3.11	9	9	2.17	13	0.57
Vocational Guidance	7	2.17	17	0	0.00	18	NA***
Senior Project & Thesis	5	1.55	18	10	2.41	12	0.58
Special Topics & Independent Studies	0	0.00	20	54	13.01	3	NA***
Contemporary Issues in Fashion	0	0.00	20	14	3.37	10	NA***
Fashion Tour	0	0.00	20	31	7.47	5	NA***
Others	47	14.60	2	74	17.83	1	0.28

* N represents the number of total counts of all the subjects in the field of 'Others' in each country.

** The p-values are from the chi-square tests performed to compare the proportions of subjects between Korea and the U.S.

*** NA (Not Available) is reported for the subject with too low counts, thus further analysis by the chi-square test is not possible due to the violation of assumption.

국대학보다 패턴과 의복제작을 한 과목에서 병행하는 어패럴디자인 교과목과 테크니컬디자인 및 피팅 교과목의 비중이 높았다. 한국과 미국 대학의 교과목 개설 비율 중 가장 많은 차이를 나타낸 분야는 패션비즈니스 분야로, 한국대학에서는 패션마케팅 교과목이, 미국대학에서는 패션리테일링 및 바잉 교과목이 가장 많이 개설된 것으로 나타나 한국대학은 마케팅 중심, 미국대학은 리테일링 및 바잉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식사 분야는 한국과 미국 대학의 교과목 개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모두 서양복식사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었다. 기타 분야에서는 스타일링 및 코디네이션(styling & coordination) 교과목과 의복품질평가(quality control & evaluation of apparel products) 교과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스타일링 및 코디네이션은 한국대학에서, 의복품질평가는 미국대학에서 높은 개설 비율을 나타냈다. 인턴십 교과목은 양국 모두 개설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미국대학에서는 인턴십 교과목의 개설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또한 미국대학에서는 학부에서도 개인이 원하는 특정 주제와 현재 패션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정해 개별 연구하는 교과목의 개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 대학의 패션관련 전공 교과목의 개설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미국대학의 교과과정은 비즈니스와 패션산업의 현황이 잘 반영되어 있으며, 한국대학의 교과과정은 디자인 교과목의 비중이 높고 패션산업의 현황이 반영된 교과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미국대학은 패션산업의 조류를 교과목에 수월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 및 관심 주제를 교수와 학생이 선정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목이 개설되고 있다. 이는 교과과정의 변경이 쉽지 않고 변경 후에도 학생들에게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산업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국내 대학에서도 이와 같은 교과목의 개설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다각적으로 변화하는 소비자의 취향과 제품 구매방법, 패션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

응하고 졸업생들이 이러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서는 패션비즈니스와 기타 분야 교과목에 대한 확대와 집중이 필요하다. 후속연구에서는 국내 패션산업의 인력수요 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통하여 패션관련전공 교과과정의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마다 학점 및 시간 수가 상이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설되어 있는 과목 수로 한국과 미국 대학의 교과목 개설 현황을 비교하였으므로 학점 및 시간에 따른 비중이 적용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References

- Cho, K. (1997). A study on the cultivation of the talent in Korean fashion industry.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1), 27-42.
- Collge Navigator: 'Fashion/Apparel Design' and 'Apparel and Textiles'. (2014).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Retrieved February 13, 2014, from <http://nces.ed.gov/collegenavigator/?s=all&p=50.0407+19.0901+19.0999&l=93Park>, S. (2014, December 4). "Korean Fashion Association announced 10 major news of fashion industry in 2014, overseas direct purchase, Curation, Normcore, etc." *Beautyhankook*. Retrieved December 5, 2014, from <http://www.beautyhanko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9984&ic=1>
- Department of Clothing · Costume. (2014). *KORNET*. Retrieved January 20, 2014, from <https://www.work.go.kr/consitJobCarpa/srch/schdpt/schdptSrchDtl.do?empCurtState1Id=4&empCurtState2Id=14>
-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2014). *KORNET*. Retrieved January 20, 2014, from <https://www.work.go.kr/consitJobCarpa/srch/schdpt/schdptSrchDtl.do?empCurtState1Id=7&empCurtState2Id=3>

- Garner, B. M., & Buckley, M. H. (1988). Clothing and textiles curriculum content needed for success in fashion marketing career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6(3), 32-40.
- Gu, Y., Kim, J., Park, K., Park, K., & Chu, T. (1999). Analysis of fashion curriculum in 4-year colleges: cross-natural comparison of Korea, USA, UK, Japan, & Hong Kong.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7(11), 19-32.
- Johnson, P. K., Yurchisin, J., & Bean, L. D. (2003). The Use of Writing in the Apparel Curriculum: A Preliminary Investigatio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21(1), 41-48.
- Jung, H. (2009). Study of fashion retail management curriculum: 4-year colleges in Korea and the USA.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3(1), 34-50.
- Landgrena, M. T., & Pasrichaa, A. (2011). Transforming the fashion and apparel curriculum to incorporate sustain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Fashion Design, Technology and Education*, 4(3), 187-196.
- Laughlin, J., & Kean, C. R. (1995). Assessment of textiles and clothing academic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3(3), 184-199.
- Lee, S., & Park, S. (2007). A globalization-focused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in fashion marketing area: comparison of Korean and U.S. graduate school's fashion marketing curricul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1(3), 420-432.
- Lee, Y., & Lee, M. (2007). A comparison between the fashion marketing field in university curricula and in research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7(5), 123-139.
- Na, S., Kwon, H., & Lee, J. (2008). Analysis of the major curriculum of fashion-related courses.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2(5), 54-66.
- Pedersena, L. E., & Burnsa, D. L. (2011). Curriculum integration across fashion-related curricula. *International Journal of Fashion Design, Technology and Education*, 4(1), 43-50.
- Publications CTRJ. (2014). ITAA. Retrieved January 6, 2014, from <http://itaaonline.org/?page=19>

Received (October 13, 2014)

Revised (November 21 2014; December 5, 2014)

Accepted (January 16, 2015)